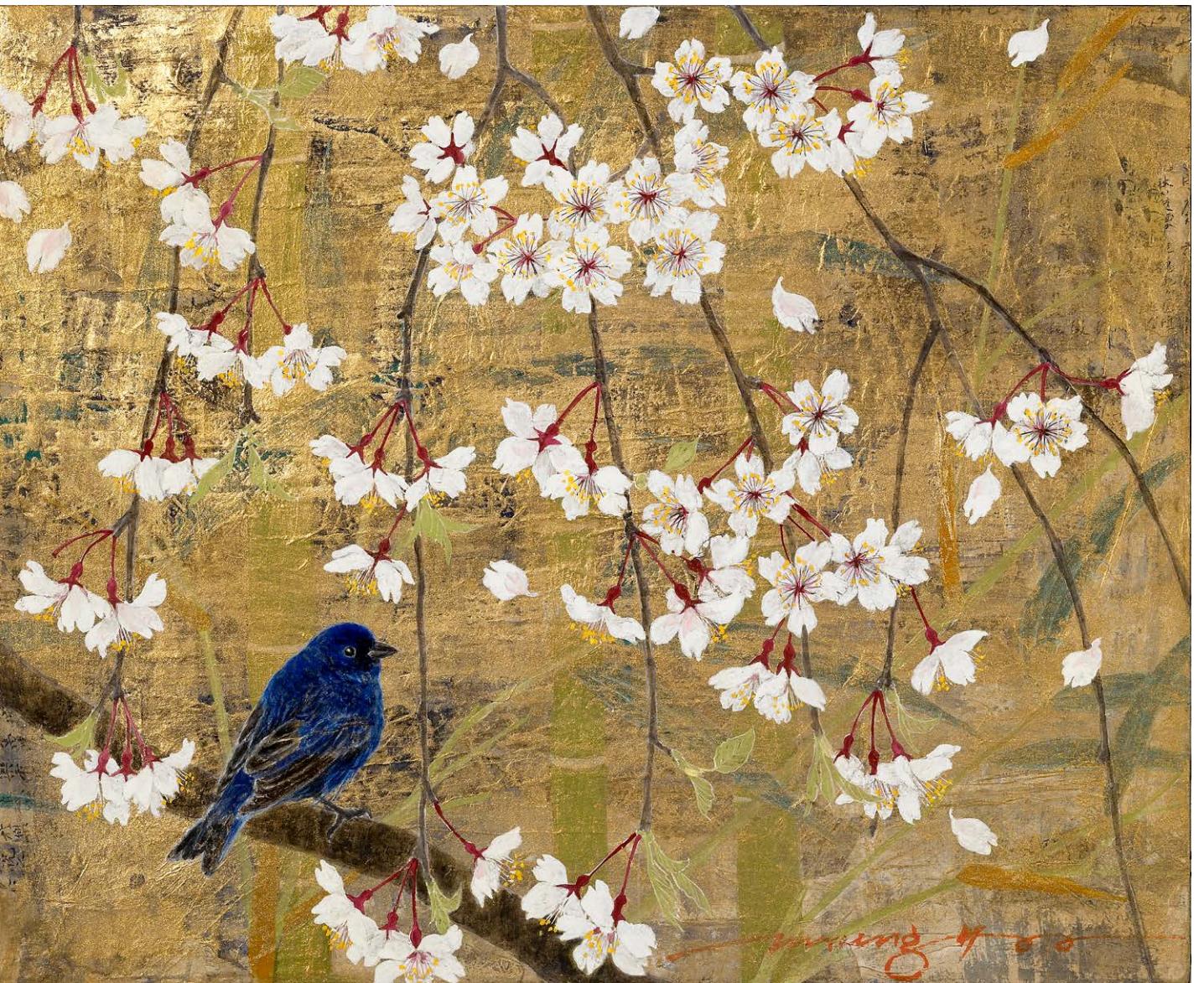


# 아주 좋은 날

2022 Spring–Volume 58





As time goes by 53cm×43.5cm, Korean antique paper on wood board, Japanese dye, Korean ink, gold dust, 2007



Wind on the prairie 162cm×112cm, oil on canvas, mother of pearl, 2013

**오명희 O Myeong-hui**  
세종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동경예술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런던 사치갤러리, 도쿄 아오야마 신세이도갤러리,  
오사카 카제갤러리, 한국 프린트베이커리, 갤러리BHAK  
(구 박영덕 화랑)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기획전과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 Coping with

오래전부터 비일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데이터나 추세 전망을 통한 예측이 무의미해지고,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러나 선부르게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불확실성을 뚫고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날』 2022년 봄호는 '돌파하는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기회 삼아 불확실한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우리 각자가  
돌파하는 힘을 갖게 되겠지요.

희망이 답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을 때 어려움을 뚫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 Uncertainty

2022 SPRING  
AJU BIANNUAL MAGAZINE  
VOLUME 58

발행일 2022년 4월 20일  
통권 제58호  
발행처 아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  
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편집·디자인 안그라픽스  
인쇄 베러웨이시스템즈  
등록번호 서초 사00076호

## contents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와 방법	inspiration	movement
4 gallery 문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다	30 mind test 위기 대처 능력 테스트	
12 forecast 불확실의 시대를 돌파하는 힘	32 world report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공동주택	
16 insight 예술,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수신호	36 my routine 아침 리추얼,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반복의 힘	
18 interview 가족, 행복의 밀도 김병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40 AJU spirit 아주의 아주 특별한 MZ세대 소통법	
22 art of happiness 우정, 타인을 껴안는 포옹	44 AJU now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유 있는 변화	
26 lifestyle archives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	48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 Rebloom

희망의 꽃  
다시  
피어나다



©Stefano Boeri

불확실한 세상,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준비 없이 맞닥뜨린 팬데믹 시대에 미술관이 폐쇄되면서 예술 작품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게 되었다.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와 예술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탈리아 예술계는 의외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관인 카스텔로 디 리볼리(Castello di Rivoli) 현대미술관이다. 이곳은 올해 3월 중순부터 900m<sup>2</sup>에 달하는 3층 전시관을 백신 접종 센터로 쓰고 있다. 3층에 전시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 거리 두기에도 적합한 공간이다. 미술관 측은 현재 전시 중인 스위스 예술가 클라우디아 콤테(Claudia Comte)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전시관을 재구성했다. 막연한 공포와 거부감으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미술관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에서 백신을 맞도록 해부정적 감정을 상쇄시키자는 전략이다.

이처럼 이탈리아 예술계는 '예술이 치료한다'라는 명쾌하고 직관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해나가는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1,500여 곳의 임시 백신 접종소 외벽에도 꽃 그림을 그려 백신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든 접종소의 지붕에 그린 앵초는 회복을 상징하는 꽃으로, 이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Stefano Boeri)가 설계했다. 문화·예술·건축계가 손잡고 백신 접종을 장려한 덕분에 이탈리아 백신 접종률은 상당 수준까지 올라왔고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해 일상 회복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가 목재와 직물을 이용해 설계한 조립식 임시 백신 접종소. 이탈리아 전역의 도심 광장에 설치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www.stefanoboerearchitetti.net](http://www.stefanoboerearchitetti.net)



## Renew

변화를 향한 색  
새롭게 만든다

팬톤(Pantone)은 미국 뉴저지 소재의 색채 연구소로, 이곳에서 고안한 색채 배열인 팬톤 컬러는 색상을 시스템으로 구조화, 체계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특히 팬톤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컬러는 디자인, 출판, 패션, 플라스틱 산업 등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팬톤은 2000년부터 올해의 컬러를 발표했다.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해 팬톤이 개념화한 컬러 시스템 안에서 올해의 색을 선정해왔는데 올해는 그 예측이 빗나갔다.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올해의 컬러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컬러가 2022년 올해의 컬러인 '베리 페리(Very Peri)'다. 팬톤의 색채 연구가는 베리 페리를 '우리가 겪는 변화의 순간을 나타내는 시대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색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컬러는 신뢰감 있는 블루 컬러 계열과 붉은 보랏빛 기조가 섞여 있다. 이 같은 조합은 조용한 열정, 열정적인 침묵과 같이 서로 상반된 성격을 섞은 것처럼 무형의 창의성과 유형의 존재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 컬러 역시 팬데믹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나온 산물이다.

팬톤 컬러를 선정한 연구원은 "베리 페리는 극심한 고립 기간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의 개념과 표준이 바뀌고 있으며, 물리적 삶과 디지털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되는 현대 생활의 융합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붉은 보랏빛과 푸른 색조가 녹아든 새로운 컬러가 세계의 컬러 트렌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지켜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광활한 가능성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고  
재료 제공: 에이엠씨



베리 페리는 팬톤 색상 번호 17-3938로 팬톤 올해의 컬러 역사상 최초로 만든 색이다. [www.pantone.kr](http://www.pantone.kr)

## Reinform

우리의 공예  
세계에 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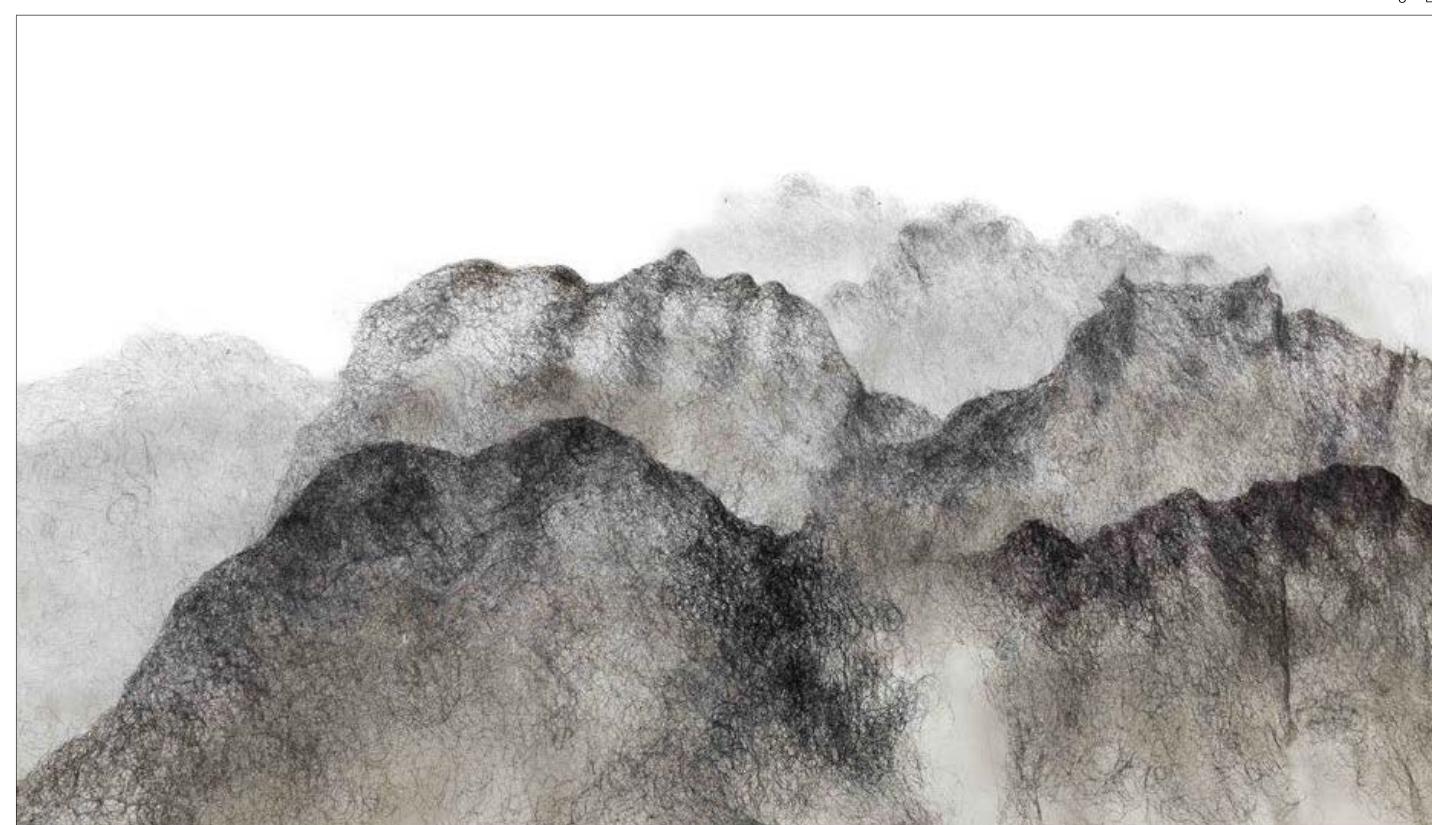
1846년 스페인 마드리드 번화가에 가죽공예 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곳에서 가죽공예 장인들과 기술 교류를 하며 로에베 (Loewe)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1870년대부터 현재까지 5대째 이어오는 로에베 일가는 국제적 브랜드의 명성에 버금가는 문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88년 로에베 가문이 설립한 로에베 재단은 시, 무용, 사진, 디자인, 공예 등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 문화 재단이다. 2022년에는 스페인 미술 공로 금메달을 수상할 만큼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다. 로에베 재단의 활동은 자국민과 세계 곳곳의 문화 시민들에게 커다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

로에베 재단의 찬란한 문화 활동 가운데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 공예상이다. 2017년 제정한 로에베 재단 공예상은 매년 전 세계에서 2,000 - 3,000명의 공예 작가가 참가할 정도로 세계 공예계에서 인지도가 높다.

반가운 소식은, 국내 유일의 공예 전문 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이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 개최지로 낙점돼 오는 7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예 작가들의 작품이 모일 예정이라는 것. 역대 전시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왕립 스페인 건축가협회, 일본 도쿄의 소개츠 재단, 프랑스 파리의 장식미술관 등에서 개최됐다. 세계 공예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축제의 장인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번 전시는 로에베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3D 기법으로 만든 가상의 미술관에 수상 작품과 놀라우리만치 흡사한 공예 작품의 3D 이미지를 구현해 놓았다. 이 전시에서 공예를 통한 동서양 문화의 조우를 감상하며 우리나라 작품들의 세계화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것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스페인 로에베 재단과 함께 7월 한 달간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회를 연다.  
[www.craftprize.loewe.com](http://www.craftprize.loewe.com)



©정소윤



©김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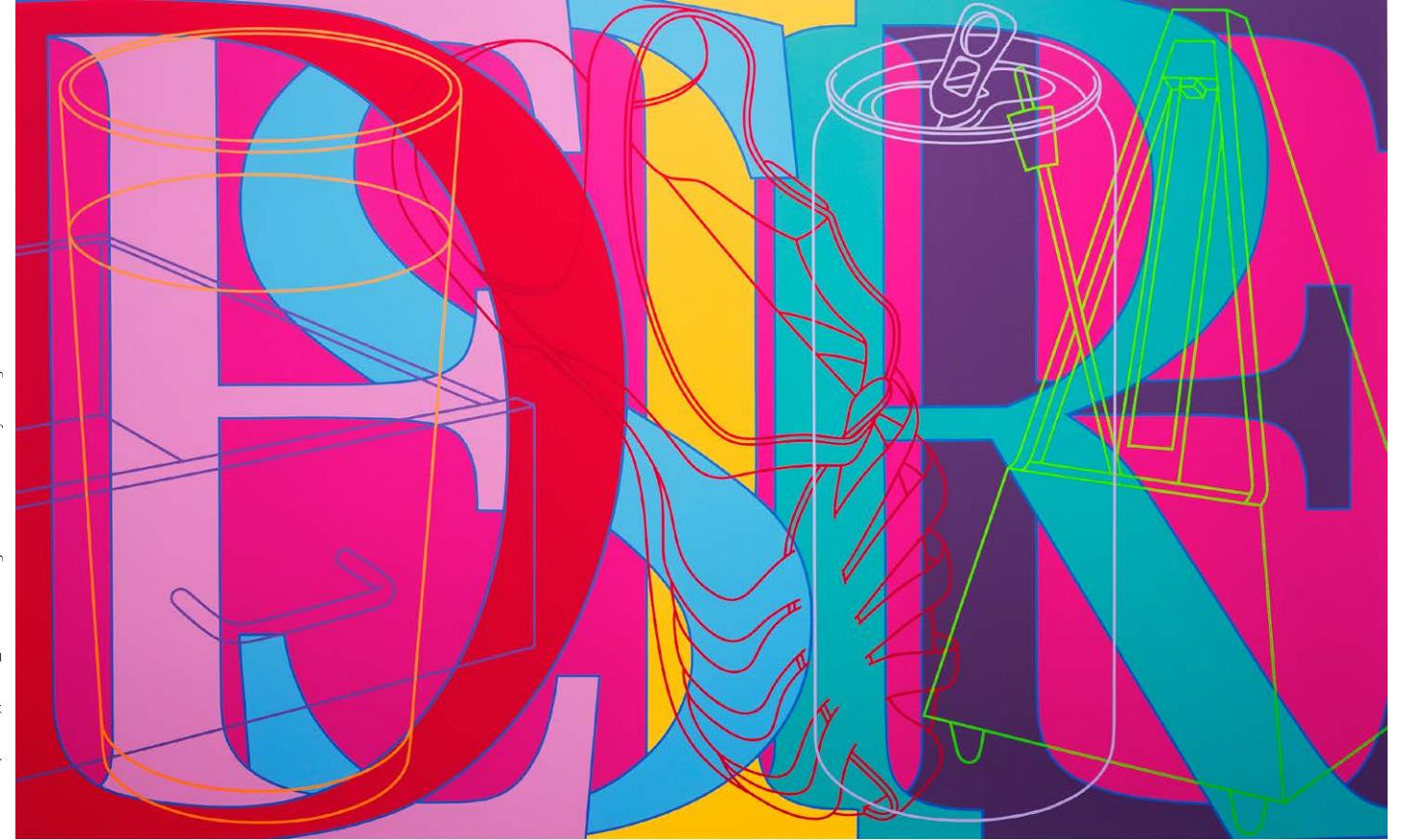
©정다혜



©정용진



©사카마 다카유키



## Reawake

일상의 고마움을  
다시 깨닫다

팬데믹 이전에는 '일상'이란 것이 크게 고마운 대상이 아니었다. 일상은 지루한 반복, 탈출하고 싶은 것이라는 부당한 오명을 쓰고 있었던 것. 그러나 팬데믹 이후 일상은 오히려 고마운 삶의 기반이자 예찬해 마지않을 소중하고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됐다. 그리하여 행복의 출발은 바로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존하는 영국 최고의 현대미술 작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Michael Craig Martin)은 일상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사물 또는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본다. "예술은 익숙한 걸 낯설게 보는 것이다. 예술은 어느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미 주위에 있는 것을 다룰 뿐이다." 크레이그 마틴이 관심 가졌던 일상의 흔한 사물, 추상적 색면, 드로잉적 선의 결합이 하나의 화면에서 이루어지며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간결한 형태, 흔한 사물의 낯선 결합과 관련 없는 색의 병치 등 회화의 고전을 해체한 그의 작품은 사물에 대한 개념에 집중하고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그래서 이번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전시는 일상과 더불어 일상의 특별함을 함께 상기하게 한다.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서울 전시는 1970년대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작가의 82년 예술 인생을 총망라하는 회고전이라 주목할 만하다. 회화부터 설치, 디지털, 드로잉,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150여 점을 공개한다. 개념 미술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 작품 '참나무(An Oak Tree, 1970)'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하며, 2022년 한국 전시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스페셜 아트워크도 공개한다.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전은 4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 불확실의 시대를 돌파하는 힘

아널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산물이자 미래의 수용과 창조의 역사라고 했다. 인류는 주어지는 미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왔다. 그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온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뚜렷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의 미래 자산은 재밌게 시도하는 우리의 변화 적응 역량일 것이다.

글. 김현식  
일러스트레이터. 국형원

20세기의 학교 교육 - 직장 생활 - 은퇴라는 단일한 라이프 사이클 패턴에서는 회복력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20세기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석학 린다 그레튼의 말대로 상황을 돌파해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 회복력 대신 돌파력

얼마 전까지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심리학에서 회복력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도 이를 극복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데, 이는 회복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회복력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시대와 상황에서는 적절해 보였다. 예컨대 20세기의 학교 교육 - 직장 생활 - 은퇴라는 단일한 라이프 사이클 패턴에서는 회복력이 매우 중요했다. 학교 교육에서 일탈했어도 이를 회복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물러나게 되었어도 재빨리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능력의 함양이 중요했다. 회복력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일정한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 부합한다. 삶의 질서가 뒤틀리거나 흐트러져도 이를 복원하는 일에 재빠를수록 좋았다.

하지만 이러한 20세기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 패턴을 재빨리 회복해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선사하지는 않게 되었다.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해결 할 수 없는 불행한 지경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전과는 다른 삶의 환경이 경제·사회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하는 일들은 단일하지 않아 평생 공부해야 한다. 교육 기간이 매우 길어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일을 한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의 조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직에 걸쳐 있는 삶이 된다. 거쳐 가는 조직일 수도 있고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조직일 수도 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한 조직과 사회관계가 당연시되고 있다. 은퇴한다고 해도 완전히 사회적 활동에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과 사회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회복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석학 린다 그레튼(lynda Gratton)의 말대로 오히려 상황을 돌파해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서 상황이란 위기 상황을 말한다. 돌파는 바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전환을 가리킨다. 예컨대 급격히 발달하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기보다 인공지능과 협업해야 한다.





'돌파하는 힘'이라고 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과감함을 생각하기 쉽다. 요컨대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위험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결국 위험 감수자가 아니라 리스크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 변화에 대한 적응력

실제로 조사 데이터를 보면 일자리에 관한 미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 직장이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쳐 시도하는 모습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관련 설문 조사를 보면 변화된 직업관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0월 취업 포털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리'를 희망했다. 다만 원하는 N잡 유형 1위는 '재능 공유 형태 파트타이머'(41.2%, 복수 응답)였다. 이런 응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N잡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험대로 향후 새로운 창업이나 직장을 꿈았다. 그러므로 지금 종사하는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며 새 일을 할 기회를 만들거나 장기적인 직업을 만들어나가는 직장인이 등장한 것이다. 무엇보다 N잡은 다양한 자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다. 취업 포털 조사에서 77.6%가 회사에서의 내 모습이 평소 자신과 다르다고 응답했다. 일종의 가면을 쓰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자신을 억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좌절하거나 포기한 꿈을 실현해볼 수 있게 한다. 그 꿈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만은 아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은 물론 덕업일치를 이를 수도 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미래에 업이 되는 일은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 위험 감수자가 아니라 리스크 매니저

N잡리가 대세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2021년 2월 취업 포털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89.7%가 '향후 N잡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 답했다. 연령대가 낫을수록 N잡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으며, 'N잡리가 더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평균수명이 길어져 정년 없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26.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생계를 위한 돈벌이보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직업)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3.8%였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가 정해질 수 없는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아니면 현재의 본업을 하면서 다른 여러 일에도 전하고 성취해가는 것이 더 미래에 성공적일까? '돌파하는 힘'이라고 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과감함을 생각하기 쉽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와 관련해 2014년 전문 경영 학술지에 발표한 위스콘신 대학교 조지프 라피(Joseph Raffiee) 교수 팀의 연구 결과는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지인 실리콘 밸리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연구 팀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창업가가 된 20~50대 약 5,000명을 조사했는데, 직장을 다니며 창업한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좀 더 높고 실패 확률도 33% 정도 낮았다. 이렇게 말하면 직장을 다니며 창업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그

게 아니었다. '위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가는가'였다. 퇴사 욕구도, 창업의 유혹도 위험이다. 요컨대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위험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결국 '위험 감수자(risk taker)'가 아니라 '리스크 매니저(risk manager)'가 되어야 한다.

#### 일과 일상의 중심 잡기

그렇다면 리스크 매니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닷든(Darden) 경영대학원 MBA의 사라스 사라바스(Saras Saravathy)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한다. 자신이 받게 될 기회의 크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불리한 면'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숙명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노력과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때 최대한 많이 시도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갑자기 모험적이거나 급격한 시도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패턴화를 평소에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런 유형 가운데 하나가 '리추얼 라이프(ritual life)'다.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 의례를 뜻하는 '리추얼'과 일상을 뜻하는 '라이프'가 합쳐진 말로 자신의 일상과 자기 발전을 중요시해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가꾸는 모습을 뜻한다. 늘 여러 일을 시도하는 것은 변화 시도의 습관화다. 여기에 소소한 것들에서 일정하게 성취감을 추구하는 '갓 생살기'와 고통 속이 아닌 즐거움 속에서 목표를 이루는 '헬시 플레저'가 결합하고 있다. 공자는 『논어』 응야편(雍也篇)에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으니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으며 견디고 돌파하며 위험을 관리할 힘의 원천일 것이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김현식

KAIST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위원이며 미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퓨처호라이즌 자문위원을 지냈고, 오랫동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에서 활동했다.

# 예술,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수신호

전쟁이라는 봉괴된 세상에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불안이 추동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다.

글. 최예선



4월 3일까지 DDP에서 열린 〈살비도르 달리〉전을 통해 달리의 유머와 용기가 깃든 작품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가오는 밤의 그림자(The Shades of Night Descending)', 1931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 망가진 세계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역사가 증발된 상태였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4년이나 이어졌고, 1,000만 명이 넘는 젊은 목숨이 사라졌다. 축축한 참호를 잠식한 인플루엔자, 즉 스페인독감이 유럽을 짊어삼키며 죽음의 마차를 작동시켰다. 그러니까 100년 전 이 세계는 초토화를 경험한 상태였다. 이전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가올 날들이 과연 어떠할지 혼미한 상황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남겼다. 축적한 경험도, 거대한 물질과 정신의 세계도 와해되었다. 사람들의 감수성도 달라졌다. 공포의 일상화는 무기력과 불안으로 이어졌다. 많은 예술가들이 시대의 아픔과 공포와 불안에 공명하며 문학을 남기고 예술 활동을 펼쳤다. 해르만 헤세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데미안』과 『싯다르타』의 초월적 존재로 거듭나고자 했고, 독일 표현주의 화가인 오토 둑스는 독일의 피폐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시대의 고통을 표현했다. 문명의 부조리와 억압에서 탈피하고 인간 정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자 했던 초현실주의자들과 예술도 문명도 별 뜻 없이 '다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다다이스트들은 전후 사회를 가장 드겁게 달군 예술가였다. 불안과 혼란은 아방가르드 예술을 활활 타오르게 한 강력한 불꽃이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존재의 불안을 온몸에 끌어안고 일어선 예술가였다. 병리적 불안, 욕구 불만, 존재의 위협에 대한 불안, 전쟁이 다시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등 끊임없는 자극이 그를 덮쳤고, 그런 심리 상태에서 머릿속에 떠오른 비현실적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다. 몽환과 상상은 예술가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센세이셔널한 그림은 달리를 특별한 예술가로 만들었고, 그 특별함이야말로 달리에게 불안을 잡아우는 명약이었다. 달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듯 자기애와 과시로 가득 찬 그림을 그렸고,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발언을 일삼으며 대중 앞에 드러나려 했다. 별난 예술가이기를 자처한 것이다.

"체계적으로 혼란을 창조해야 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진다. 모순적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망가진 세계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한 위대한 예술가의 생존 방식이었다.

## 장난기와 유머, 상황을 전복시키는 힘

전쟁과 예술이 서로를 고발하고 물어뜯고 불태우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어냈다. 이때처럼 전쟁과 예술이 밀접했던 적이 없었다. 참상을 기록하고 범죄를 단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트라우마 예술이 한 축을 형성했다면, 불안에 얹눌린 심리를 드러내고 내적 서사를 완성하는 정신 분석학적 예술이 다른 한 축을 형성했다. 달리는 후자에 속했다. 일상의 세계를 전복시키며 새로운 인식을 여는 것이야말로 달리가 추구하는 예술의 역할이었다.

무의식과 꿈의 세계, 상상과 몽환의 세계는 거칠고 기이하지만 에로틱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했다. 장난기와 유머는 달리의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불안감과 공포 심리가 예술로 전환될 때 장난기와 유머 코드가 삽입되면서 달리의 예술은 달리의 심리와 다르게 불안을 전복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늘어진 치즈 같은 시계, 신체를 지지하는 조그마한 목발, 거대한 코끼리를 지탱하는 가늘고 긴 다리… 팽팽한 긴장감과 결합한 유머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렬한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낮잠에서 깨어난 달리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간다고

느꼈다. 시계가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리는 치즈처럼 보였던 것 같다. 달리는 녹아내리는 시계라는 흥미로운 형태를 그림 곳곳에 그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고독이 담긴 동그란 카망베르 치즈"라 부르면서.

달리의 시계만큼 수많은 상상과 이야기를 불러일으킨 사물이 또 있을까? 곳곳에 수없이 등장하는 작은 모발처럼 의미심장하면서도 기이한 사물이 있을까? 어디서나 보이는 개미 떼, 길쭉한 사이프러스 나무, 눈에 띠는 구두 한 짝까지 우리는 그가 그린 사물을 볼 때면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다. 이제 예술은 예술가에게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객의 이야기이며 사회의 이야기가 된다. 이쯤 되면 그는 불안이 추동하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예술이 진정 해야 할 일

살바도르 달리가 1933년에 그린 '슈가 스팽크스'를 이야기해보자. 광활한 벌판을 바라보고 앉은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 아래쪽에 아주 자그마하게 여인이 있고 그 앞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불쑥 솟은 바위산이 자리한다. 화면의 대부분에는 황금빛 구름이 넓게 펼쳐진다. 먼지구름 같기도 하고 낙조에 물든 구름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름 형태가 스팽크스를 닮았다.

달리 그림 중에선 드물게 관조적인 그림이다. 어둠이 밀려오기 직전의 풍경과 등을 보이고 앉은 여인. 여인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근경에 자리한 바위산일까, 저 멀리 다가오는 어둠일까? 오렌지빛으로 물든 구름, 아니면 자신의 내면일까? 이 그림에서 존재의 외로움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외로움은 느끼는 나의 것일까? 어쩌면 화가가 아내 갈라로부터 외면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투영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화가 역시 여인의 외로움을 감지했으리라 느껴진다. 화가는 한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불안과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감정까지도 모두 이해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도구로 예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예술은 공감에 이를 수 있다.

감정 규범으로 사회를 조명하고 역사를 짚어보는 학문인 감정역사학에서는 1920년대를 감정 규범이 변화한 세대라고 말한다. 불안과 분노 같은 '방약생동'하는 감정을 활발히 꺼내고 용기로 맞서며 극복하던 19세기와 달리,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쿨'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시의 규범이 되었다고 말이다. 불안과 공포는 아예 감지하지 못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고, 용기보다는 조심성이 강조되었다.

당시 화려하게 꽂피던 아방가르드 예술 활동이 결국 막을 내리고 전쟁으로 귀결된 이유도 공포와 불안을 외면하고 감정을 숨기려고만 했던 시민들의 심리가 더욱 크게 작동해서가 아니었을까? 시민들은 새로운 세계를 원했으나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할 절실한 명분은 전체주의로 향했고 더욱 큰 차별과 혐오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예술이 꽂피운 감정의 분출과 정신적 정화 과정이 사회적으로 억압된 공포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팬데믹 세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술이 필요하다. 유머와 용기로 내적 강인함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예술가를,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과 대면해야 할 시간이다.

최예선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공부했고 근현대 예술과 건축의 새로운 의미를 읽어내는 글을 쓴다.  
『모던의 시대 우리 집 - 레트로의 기원』, 『길모퉁이 오래된 집』, 『밤의 화가들』 등의 책을 썼다.

# 가족, 행복의 밀도

## 김병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박사를 만나 유연하지만 탄탄한 구심력이 생기는 가족 관계의 소통법을 배워본다.



**관계와 애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가족 간의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로 만난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낄 정도로 가족과 소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로 만난 관계에서의 소통은 가족과의 관계에 비해서는 단순하고, 훨씬 객관적인 영역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 즉 친밀한 관계에서는 일에서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간 삶에서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정에서는 그보다 훨씬 못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만 강요하는 소통으로 사이가 멀어진 부부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습니다. 부부 갈등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관점만 고집하고 상대의 관점은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댁 행사에서는 조그마한 과실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쳐갓집에는 결혼 내내 부인을 보낸 적이 없는 남편이라든지, 자신은 매일 술 먹고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서 부인이 잘못하면 폭력을 쓰는 남편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형태는 달라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댁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배우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으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만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원활하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통한다면 그것만으로 축복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상대의 결정에 대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존중한다면 두 배의 인생을 살 수 있겠네요.**

소통 자체가 행복이기도 하지만, 배우자를 존중하면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부부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음식 맛이 최고인 지방 출신이라고 가정해보죠. 한 사람은 자기 문화 이외의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상대 문화의 음식을 적극 탐색하고 경험해봅니다. 전자는 자기 문화 하나만 경험하고 살 것이고, 후자는 맛있는 음식을 자신의 것에 하나 더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만큼 우월할 것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다가 그 우월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화, 습관, 심지어 잘못된 행동까지도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배우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훨씬 더 큰 행복이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만 옳다고요? 편협하고 제한된 행복만 경험하고 산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소통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포기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서로 기대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포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관점을 바꾼다는 말이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포기가 아닌, 고류를 위해 나의 관점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 중에는 남편이 다 해주길 바라는 이도 있고 어떤 남성은 부인이 해주기 어려운 내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기대하는 수준이 맞는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대가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소통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행위일 것입니다. 포기하기보다는 맞춰서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자동차 깜빡이와도 같아요. 차가 달릴 때 깜빡이가 없으면 운전자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 교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의중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한쪽이 예민해도 문제이고 둔감해도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머리에는 '감정의 뇌'라 불리는 부위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 상태를 얼굴에 그대로 표출합니다. 왜일까요? 상대에게 보이기 위해서죠. 왜 표정을 보이려는 걸까요?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반적인 상태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건드리지 마', 웃고 있으면 '맡 걸기 좋은 상태' 등등의 뜻이 전달되죠.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표정을 읽고, 반응이 좋으면 이어가고 아니면 중단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쳐서 그 의미를 놓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로 여성은 상대의 표정을 세분화해 잘 읽는 반면 남성은 서툰 편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여성은 아이와 교감하고 양육하면서 표정을 읽는 뇌 영역이 발달했고, 남성은 수렵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뇌가 발달했습니다. 그만큼 그 영역의 뇌는 발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성이 표정으로 시그널을 보내도 남성은 눈치채지 못한다는 소리가 알고 보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네요. 상대의 표정을 잘 살펴 감정 상태를 잘 읽어야겠어요.**

감정은 행복과 직결되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내 정서가 어떤지 살펴보고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세분화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왜 그런지 아픈 마음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겠지요.

**내 마음을 모른 채 무표정하게 살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겠네요.**  
심리검사를 하면 어떠한 정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채색 반응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데 내면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부든 친구든 인간관계를 맷으며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는 이러한 관계를 위한 대화를 위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가 커진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를 위해 진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인간 삶의 결과를 결정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표정이 없습니다.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타인과 많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표정이 살아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 **대화를 자주 할수록 표정이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이군요.**

겨울신경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에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동 영역을 담당합니다. 그중 겨울신경세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대를 복제하는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복제한다면 누구와도 교류할 수 있는 표정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표정의 정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타인을 받아들이느냐가 표정의 자연스러움을 결정합니다.

####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함께 살면서 서로의 표정을 닮아가는 거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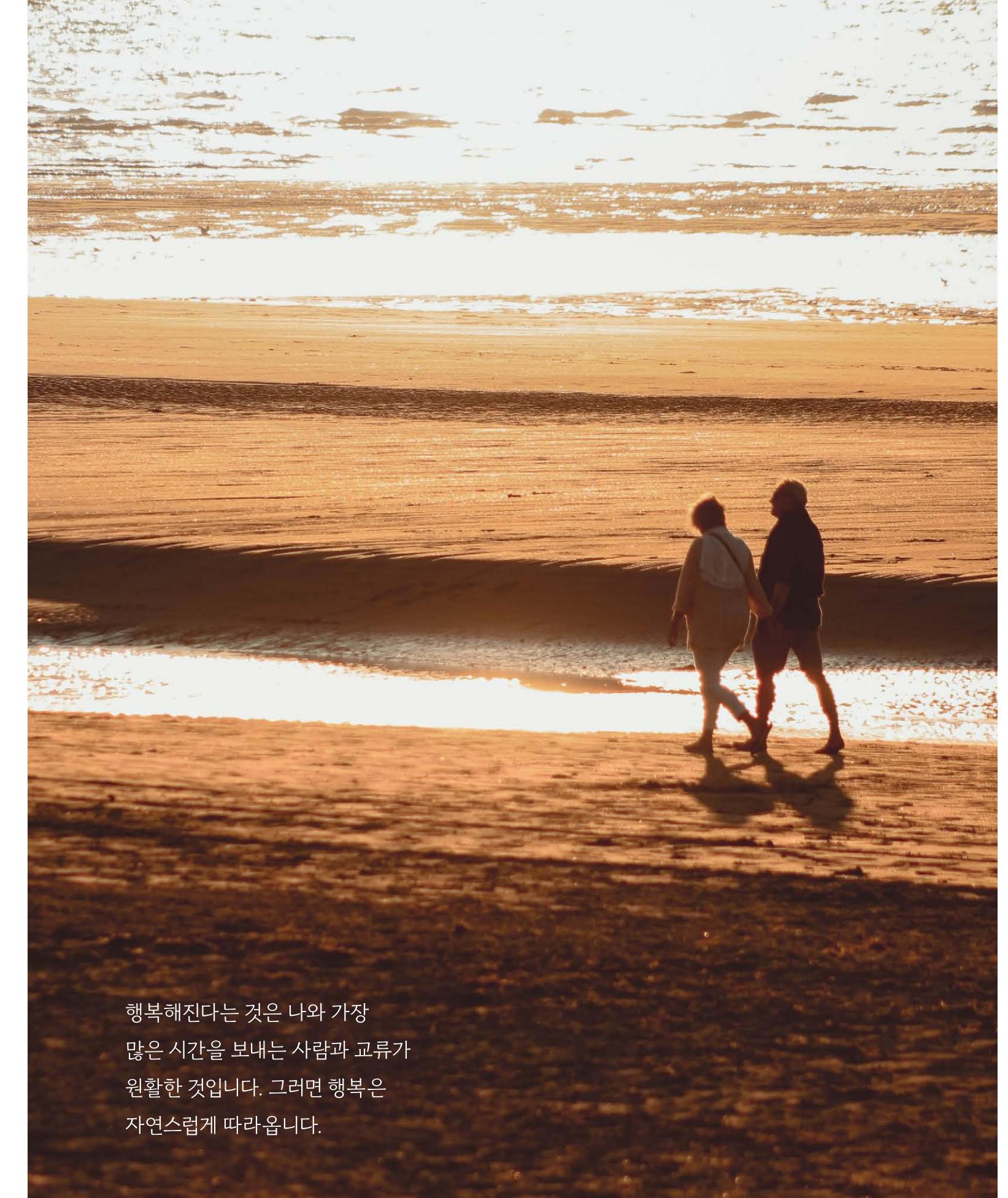
이렇게 우리 인간은 겨울신경세포를 통해 상대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서로 끊임없이 표정을 주고받잖아요. 남의 행동을 읽고 내가 하는 행동의 60%는 겨울신경세포의 영향인 거죠. 이 이론이 나온 다음에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무너져버렸어요. 인간은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자식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겠네요. 타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크겠죠?**

자식이 부모와 다른 생각, 다른 재주를 갖고 있으면 축복이라 생각해야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아이를 뜯어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식의 능력을 박탈시키는 행동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통한다면 그것만으로 축복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끌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아주 좋은 날』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소통이 인간 행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사람이 많고,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교류가 원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소통하려고 해요. 뇌와 뇌가 통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교류가 원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 우정, 타인을 껴안는

## 포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난민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그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본 정여울 작가가 영화 『르아브르』와 소설 『교실 뒤의 소년』을 통해 우정이라는 인간 고유의 본성이 어떻게 타인을 껴안고 또 함께 나아가게 하는지 이야기한다.

글. 정여울

### 따스한 환대의 미소

대학원 시절, 같은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이 어느 날 말을 걸어왔다. “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논문을 써야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언니가 글을 잘 쓰셔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나도 온갖 아르바이트로 ‘열정 페이’에 시달리던 시절이었다.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였지만 절박하게 청하는 도움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대뜸 ‘언니’라고 부르는 그녀의 다정함과 절박한 표정이 내 마음의 문에 노크를 했다.

그날부터 엄청난 노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교정, 교열 정도로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아 원문의 의도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윤문과 가필까지 했다. 하다 보니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친절이 아니었다. 한국을 사랑해서 유학까지 온 젊은이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다. “그거 정말 공짜로 해주는 거야? 수고비라도 받아.” 하지만 차마 돈을 받을 수는 없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 유학생을 환대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환대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임을. 그녀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 나의 따스한 마음으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낯선 곳에 찾아온 외로운 이방인이 비로소 그 고장을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따스한 환대의 미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 또한 대학원에 갈 때 전공을 바꾸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온’ 이방인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은근히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잊을 수 없었다. 같은 학교인데도 다른 건물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어떻겠는가. ‘텃세’라는 것은 우정과 환대를 가로막는 가장 흔한 장애물이며 가장 치명적인 우정의 방해물이다.

Photographer: Marja-Leena Hukkanen. Picture Courtesy Janus Films. Image ©Sputnik Oy.





Photographer: Maija Leena Hukkanen. Picture Courtesy Janus Films. Image © Sputnik Oy.

### 환대는 나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일

나에게 환대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것은 영화 <로아브르>와 소설 <교실 뒤의 소년>이다. 르아브르는 프랑스 서부의 항구도시다. 주인공 마르셀은 젊은 시절에는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보헤미안이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정착해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온 불법 난민 소년 이드리사가 마르셀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처음에는 잠깐만 숨겨주려 했지만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자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드리사를 더욱 극진히 보살피게 된다. 아프리카 난민 소년 이드리사를 추적하는 경감 모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마르셀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난민 소년 이드리사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버리거나 품거나. 추방하거나 환대하거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람을 맞이하는 방법도 결국은 그 두 가지 길뿐이 아닌가. 두 팔 벌려 환영하거나 냉대하거나.

마르셀뿐만 아니라 점차 낯선 소년 이드리사의 비밀을 알게 된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드리사가 난민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보면 소년의 진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소년이 오랫동안 외로움에 몸부림쳤다는 것, 가족마저 잃고 쓰라린 상실감 속에 아파해왔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천진무구하며 간절히 어른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드리사가 난민이라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연민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환대와 우정으로 바뀌는 과정, 어느새 마르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마치 처음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드리사를 철저히 숨겨주고 마침내 이드리사가 원하는 곳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탈출을 돋는 과정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대야'라고 외치는 듯한 사람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나도 이방인이고 약자라는 것을. 마르셀도 젊은 시절에는 난민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이방인에 대한 환대는 바로 나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우정과 용기

『교실 뒤의 소년』은 낯선 친구를 사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스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난민 소년 아흐메트가 학교로 전학을 온 뒤 수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아흐메트가 위험한 아이라는 등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퍼진다. 전쟁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아흐메트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전쟁터에서 왔다면 참 안쓰러운 아이입니다.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데 비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흐메트를 싫어한다. “아휴!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무슨 말을 해도 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소설의 이 설정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난민에 대한 확증 편향된 통계나 왜곡된 가짜뉴스는 우리 안에 혐오와 배제, 차별과 증오라는 씩을 심고 키웠다.

하지만 나와 내 절친 톰, 조시,マイ클은 그런 소문과 달리 너무도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흐메트를 친구로 삼고 어떻게든 가족을 찾도록 온 힘을 다해 돋기로 한다. 아이의 따스한 마음 속에 숨겨진 선의와 우정을 향한 간절한 열망은 마침내 차운 어른들의 마음마저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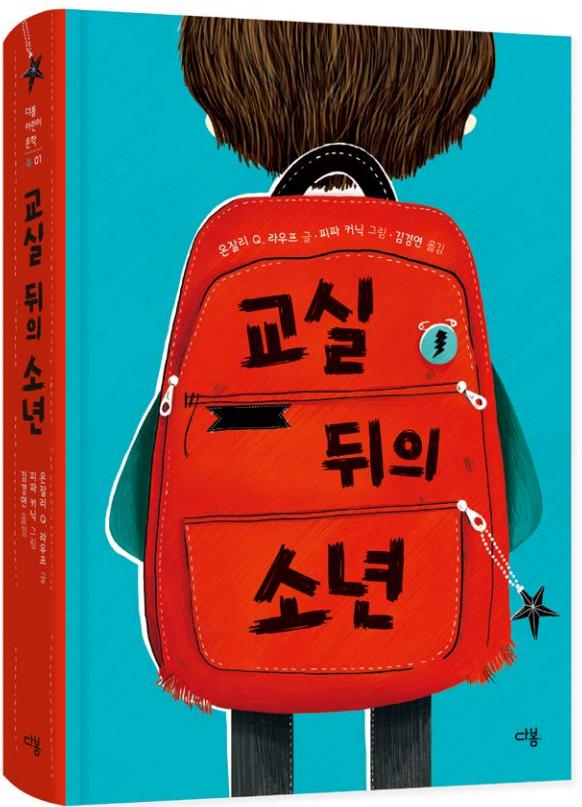
마침내 아흐메트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돋게 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아흐메트가 난민이기에 앞서 아이이고 친구라는 것,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설에서 난민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아홉 살 어린이가 던진 이 말은 큰 울림을 전한다. “난민이란 게 뭐가 중요해? 우리와 같은 아홉 살 아이일 뿐이야.”

아이들의 따스한 환대가 아흐메트의 닫힌 마음을 열고, 마침내 아이들의 우정과 용기가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바꾼다. 우정의 힘은 이토록 세다. 환대의 힘은 이토록 강하다.



© Sputnik Oy.



© Sputnik Oy.

자료 제공: 다음출판사

정여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인문학, 심리학, 글쓰기 등을 주제로 다수의 책을 썼다. 저서로는 제3회 전숙희문학상을 수상한 산문집『마음의 서재』,『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찾다』,『끝까지 쓰는 용기』 등이 있다.



##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

바야흐로 디지털화폐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0년 이미 전 세계 80%의 중앙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렇듯 글로벌 디지털화폐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일반인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NFT, CBDC, STO, DeFi 등등 암호 같은 주요 개념을 하나씩 짚어본다.

글. 이시한

이시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자칭 '프로 지식 탐험가'로서 금변하는 트렌드에서 변치 않는 의미와 가치를 분석한다.『NFT의 시대』,『메타버스의 시대』,『지식 편의점』 등을 썼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영 교수다.

## Block Chain 블록체인

공공 거래 장부 혹은 분산원장이라고도 부른다. 공개된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참여한 컴퓨터에 이 거래를 기록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

거래 정보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연결하고, 그 거래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전자화폐 1개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고 기록되어 증명되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위조하려면 거래가 기록된 수많은 개별 컴퓨터에 다 찾아가 이 정보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의 거래는 위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 NFT 대체 불가능 토큰(디지털 가상 자산)

'Non-Fungible Token'의 준말. 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붙여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기술, 혹은 그렇게 생성된 가상의 디지털 자산.

디지털 파일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무한대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 파일에 특정한 표시를 해 이것이 희소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면 새롭게 자산 가치가 생길 수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림에 NFT를 붙여 NFT 아트를 거래하기도 하고, 메타버스상의 부동산 파일에 NFT를 붙여 부동산 거래를 하기도 한다. 디지털 파일에 값어치가 생기면서 자산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NFT는 마치 집 거래에서 집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NFT가 왜 대체 불가능하나면 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붙이는 것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한다고 하는데 민팅할 때 블록체인상에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NFT 거래가 이루어져 주인이 바뀔 때도 새로운 주인의 이름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한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의 자산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준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나 여러 알트코인이 민간에서 발행한 것과 달리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는 P2P 네트워크상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한다. 암호화폐의 시작자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2008년 경제 위기 때 각국 금융 당국이나 금융 엘리트들의 화폐 통제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생긴 것이다. 한 나라나 일부 금융사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화폐를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환전이나 국제적인 장벽 문제에서 자유롭다. 나라를 초월해 통용되기 때문에 신분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 거래나 범죄와의 연관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중앙에서 통제 불가능한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선진국일수록 금융 정책이 실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화폐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다만 대중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이유가 중앙에서 '장난질'할 여지가 없고 일부 금융 엘리트에게 집중된 데이터와 권력의 독점을 막을 수 있어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CBDC의 등장은 그런 의미를 퇴색시킨다.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민간의 암호화폐 유통을 막고 통제가 쉬운 CBDC를 쓰도록 정책을 유도할 텐데, 민간에서는 그렇다면 굳이 CBDC를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CBDC가 어떤 식으로 대중에게 수용될지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 DeFi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Decentralized Finance'의 준말. 각국 정부, 은행, 기업 등 중앙화된 기관의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디파이는 암호화폐와 NFT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다. 저축, 송금, 대출, 투자 등 은행 서비스를 암호화폐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은행이나 중앙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100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10개 받고 싶다면, 디파이 시스템에서 이 암호화폐를 빌려 쓸 사람을 찾아 연결해주면 된다. 다만 이런 경우 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 그에 대비해 담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NFT다. 1억 원짜리 NFT 아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현실의 은행에서는 담보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디파이에서는 이 디지털 가상 자산이 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보가 될 수 있다. 디파이는 개인 간 금융 거래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현재의 은행은 생각지도 못할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날 것이다.

## Staking 스테이킹

블록체인이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암호화폐 자산을 고정시키고, 고정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지분을 배정받는 것.

어떤 블록체인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일정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에 자신이 참여한 지분만큼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퍼센트의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스테이킹이라고 한다.

해당 플랫폼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셈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저축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나한테 100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면, 그것을 스테이킹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식이다. 3년 후 암호화폐의 가치가 오르면 그때 시세 차익을 챙기면 되는데, 그때까지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 ICO 가상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의 준말.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다. 기업이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 재무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코인이라는 것이 다르다. 사업자가 사업 비전이나 목적, 운영 방식 등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만들어 공개하고 코인을 발행한다. 투자자가 그 코인을 구매해 투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코인을 판매한 기업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IPO에 비해 주간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요건 역시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IPO는 보통 국가 기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ICO는 암호화폐 기반이라 국가에 상관없이 글로벌한 투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벌어지기 쉽고, 기업이 처음 약속한 계획을 이루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ICO를 금지하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다. 그래서 우량 한국 기업들이 우회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는데 결국에는 외국 투자자에게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볼 수도 있다.

## STO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준말. 자산을 조각 투자 하는 방식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암호화폐로 지분 증명을 하는 것.

부동산은 보통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리츠 상품은 부동산에 조각 투자 해서 지분을 가짐으로써 덩치 큰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개별 지분을 NFT화해서 코인으로 발행하면 지분에 대한 증명이 확실해진다. 이러한 방식을 STO라고 한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조각 투자가 필요한 여러 실물 자산, 그리고 NFT 같은 가상 자산에도 이런 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NFT 아트를 1,000조각으로 잘라 1,0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분을 NFT로 기록하고 코인으로 만들어 거래하게 함으로써 그림을 거래하지 않고 지분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로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 위기 대처 능력 테스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직장인의 능력으로 위기 대처 능력이 손꼽히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위기라는 복병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얼마나 능숙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스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열정보다 대처 능력

세상이 급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피해를 보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 즉 위기 대처 능력이 앞으로 직장인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이유다. 위기 대처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을 도출한 결과, 위기 대처 능력이 1위로 선정된 것이다. 5년 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으로 선정되었던 '열정'은 9위로 밀려났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과거 추격형 개발 사회에서는 선진국이나 선도 기업의 모범, 경영진의 상명하달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열정이나 책임감이 우선적 으로 요구됐다면,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연결성이 더욱 촘촘해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위기 대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1위로 선정된 위기 대처 능력에 이어 2위와 3위에 각각 '대응력'과 '미래 예측력'이 꼽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응력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본인의 목표나 능력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미래 예측력은 '다양한 환경 분석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말한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맞이해 나의 위기 대처 능력은 어떤지 점검해보자.

문항	예	아니오
1. 지금 맡은 프로젝트의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2. 문제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3. 소 잊고 외양간 고친다? 어차피 고칠 외양간이었다.		
4. 약속 시간에 늦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5. 데드라인이 코앞일 때 일의 능률이 최고조에 오른다.		
6.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7. 어차피 인생은 복불복, 노력이 운을 능가할 수는 없다.		
8. 무릇 좋은 리더라면 팀원의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9.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다.		
10. “공든 탑이 무너지라”는 옛말이 있지만 공든 탑도 무너진다.		

\* 5 문항 이상 '예'를 선택했다면 자신의 위기 대처 능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SOLUTION**

위기 대처 능력은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다. 여기서 '침착'은 평소 머릿속으로 위기 상황을 그려보고 대응책을 연습하는 습관으로 기를 수 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보다 표면적인 위기나 장애물 해결에 급급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점을 놓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다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직감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은 필수다.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으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위기 대처 능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밀한 실행 계획 세우기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문제를 같이 극복할 사람들의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식을 공유해야 행동으로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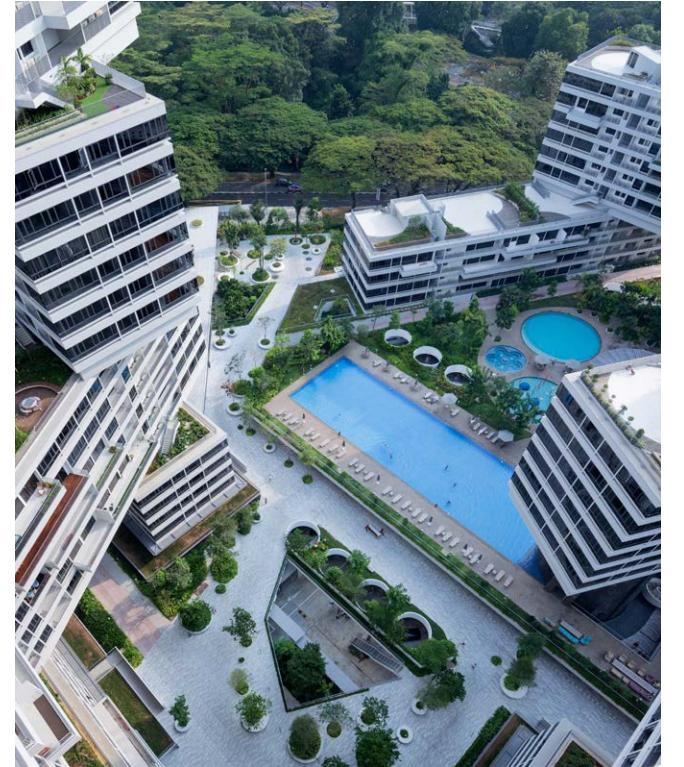
『존재감을 드러내는 문제 해결력』의 저자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사고의 정지, 시간 부족, 경험 부족, 경험과 상식에 의한 선입견, 권위와 지위, 무사안일주의.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경험과 상식에 의한 선입견'이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과 상식이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무조건 통하는 방법'이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감과 선입견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공동체를 품고 자연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도시화, 산업화로 생겨난 아파트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인간의 행복과 성취를 지켜주는 아파트를 꿈꾼다. 건축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요구로 공동주택도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 건축가들 또한 주거 형태가 삶의 본질을 되찾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글. 계안나

사진 제공. Pritzker Architecture Prize, MVRDV, Büro Ole Scheeren



계안나

오랜 기간 잡지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네이버 <디자인 프레스> 등 다양한 매체에 건축, 아트, 디자인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 소셜 믹스를 제안하는 아파트

싱가포르처럼 땅이 좁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고층 아파트는 이상적인 거주 형태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파트 모델을 기본으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조한 것은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셜 믹스다. 소셜 믹스란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부자, 중산층, 서민이 한 단지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교류를 늘리고 학교, 교통,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함께 이용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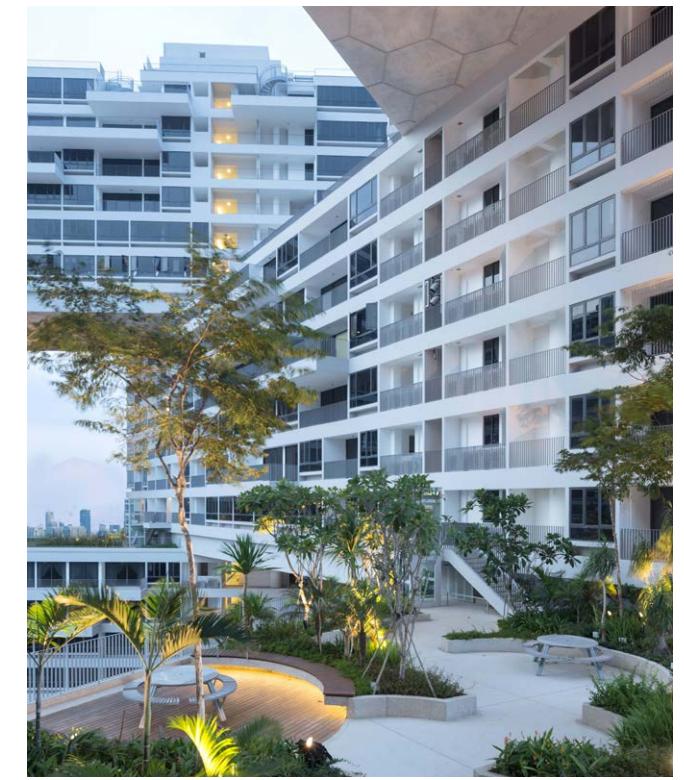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기반을 아파트 안에 마련하고자 유명 건축가와 함께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 전체를 디자인하고, 작은 평수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아우르는 중대형 단지 위주로 개발을 시작했다. 또 거주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가장 좋은 예시가 네덜란드 건축 그룹 OMA와 건축가 올레 스히렌(Ole Scheeren)이 디자인한 '더 인터레이스(The Interlace)'다. 2015년 분양을 시작한 이곳은 직사각형 고층 아파트 형태를 벗어나면서도 아파트의 장점은 그대로 흡수하고 자연, 사람, 도시가 공생하는 구조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초고층 건축물 및 도시 주거 환경협의회(CTBUH)'가 수여하는 '어번 해비타트상', 세계건축페스티벌(WAF)이 수여하는 '올해의 세계 건축 물'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 수직에서 수평으로

70.5×22×16.5m 규모에 30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6층 아파트. 마치 보드게임의 젠가처럼 아파트 위에 아파트, 그 위에 또 아파트가 세각각 다른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쌓여 있다. 가장 높은 동은 6층 아파트 4개 블록이 겹쳐 진 24층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각각 120도 각도로 틀어져 쌓여 있는 블록 중심에 육각형 중정이 있고, 그곳에 수영장과 정원이 자리한다. 17만 m<sup>2</sup>의 대지에 쌓아 올린 집으로 총 1,040세대가 거주한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올레 스히렌은 '건축물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아파트 건축에서 강조하는 수직선을 수평선 개념으로 전환하고, 블록과 블록이 만나는 교차점과 옥상 공원을 조성하는 식으로 공동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블록은 동 간 거리를 적절하게 만들어 프라이버시와 조망권을 보장하고, 세대마다 다른 풍경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피하고 산, 아파트 단지, 공원 등이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경치를 감상한다. 수평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다른 블록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고 아파트 전체를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다.

이처럼 수직선을 수평선으로 펼침으로써 고층 아파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폐쇄성과 획일성에서 벗어나고, 옥상 정원과 중정을 강조함으로써 열린 구조와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 개념에 자연을 끌어들였다는 점이 대담하게 느껴진다. 폭포, 연꽃 연못, 스파 등이 자리한 8개의 중앙 정원, 블록마다 자리한 옥상 정원을 비롯해 게임 룸, 극장, 노래방, 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로 들어가는 장소마다 열대우림이 자리한다. 거주자들은 넓은 그늘 아래서 바비큐 파티나 테라스 캠핑 등을 즐기며 익명성을 유지한 채 이웃과 한 공간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 하는 것보다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해 모두를 품은 것이다.



©The Interlace by OMA, Ole Scheeren photo by Iwan Baan

©MVRDV/Photo by Ossip van Duivenbode



###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곳

네덜란드 건축 그룹 MVRDV가 디자인하고, 2020년에 완공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공동주택 '일로트 케리(Ilot Queyries)'는 자연 친화적 공동주택의 이상향을 보여준다. 총 308세대 중 163세대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소셜 하우스다. MVRDV는 계층 간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5,200m<sup>2</sup> 면적의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비규칙적인 형태의 건물이 둥글게 에워싸는 구조를 택했다. 정원과 광장은 무게감이 다르다. 광장은 열린 공간이자 주민을 보호하는 닫힌 공간이다. 중앙 광장은 지면이 아닌 아파트 1층 높이에 있는데,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광장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광장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광장에는 83그루의 자작나무와 들꽃, 풀밭으로 꾸민 미니 정원이 여기저기 자리해 있는데,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 사람과 소통한다. 건축가는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식을 단지 식물로 꾸민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곳으로 해석했다.

아파트 지붕 경사도는 14도에서 45도 사이. 이로써 광장뿐만 아니라 각 동으로 진입하는 모든 길에 빛이 가득 머문다. 또 모든 세대에 각기 다른 크기의 발코니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발코니는 자연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자 진정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안식처다. 한편 9층 건물 꼭대기에는 유리 벽과 지붕으로 만든 레스토랑이 자리한다. 내부에는 식물이 가득하고 통유리창으로 아파트 너머 고요히 흐르는 강이 바라다보인다.

### 건축은 삶이 지속되도록 조용히 지켜주는 일

2020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 듀오 안 라카통(Anne Lacaton)과 장필리프 바살(Jean-Philippe Vassal)은 유럽과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특히 노후된 공동 사회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미래의 아파트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2011년에 완성한 프랑스 파리의 '부아 르 프레트르 타워(Tour Bois le Prêtre)'. 파리시는 1960년대의 프랑스 건축가 레몽 로페즈(Raymond Lopez)가 지은, 96세대로 이루어진 17층짜리 도시 공동주택을 현대 기준에 맞게 개조할 건축가를 찾고 있었다. 파리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동주택을 개조하는 방법을 연구한 안 라카통과 장필리프 바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원칙은 철거하지 않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조립식 재료를 이용해 각 세대의 공간을 넓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철거 비용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다. 거실을 확장하면서 밀폐 가능한 통창을 낸 발코니를 만들었다. 이로써 하루 종일 자연광이 집 안 가득 들어오고 파리 시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발코니를 거실 또는ダイニングルーム으로 사용했다. 빛, 바람 등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열, 채광, 환기가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2017년 완공한 사회 주택단지 G, H, I도 엘리베이터, 배관을 새로 바꾸고 공간을 확장했는데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비용도 크게 절감했다. 신축 건물은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재생은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내장,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섞이면서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보존하고 거주자의 생활과 문화를 건드린다. 영국 의원 해더리(Hatherley)는 런던의 노후된 아파트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파리의 부아 르 프레트르 타워를 예시로 들면서 런던 주택 또한 철거 대신 재생 건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외 건축가의 작업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 가능한 건축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파트 브랜드 또한 자연 공간을 늘리고,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야외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마다 지속 가능한 건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 에너지 절약, 개발과 보전의 효율적인 조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한 건축물을 고민하고 있지만 국내만의 부동산 시장, 건축법,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정부보다 민간 주도의 노력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효율성, 기능성, 기계 미학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인간성, 생태와 순환, 조화와 공존을 위한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주거 형태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된다고 하니 아파트 개발은 더욱 급증할 것이다. 아파트인가 단독주택인가, 건축물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한 공동주택은 결국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찾는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Transformation of G, H, I Buildings, Grand Parc, 530 Units, Social Housing (with Frédéric Druot and Christophe Hutin), photo courtesy of Philippe Ruault

# Morning Rituals



아침 리추얼,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반복의 힘



요즘 사람들은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자신만의 매일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한다.  
이 반복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힘, 삶의 중심을  
잡는 힘을 길러준다.

글. 손하빈  
일러스트레이터. 국형원

'이게 참, 습관이 돼버려서 말이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나만의 습관이 있 을까? 누군가는 눈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잔, 다른 누군가는 저녁이면 당기는 시원한 맥주 한잔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나의 경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옷을 의자에 걸쳐두는 습관이 있다. 고치고 싶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하고 마는 행동이다. 이처럼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한다. 좋은 습관이면 다행이지만, 나쁜 습관이라면 아주 오랜 세 월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꽤 큰 노력을 해야 그 패턴을 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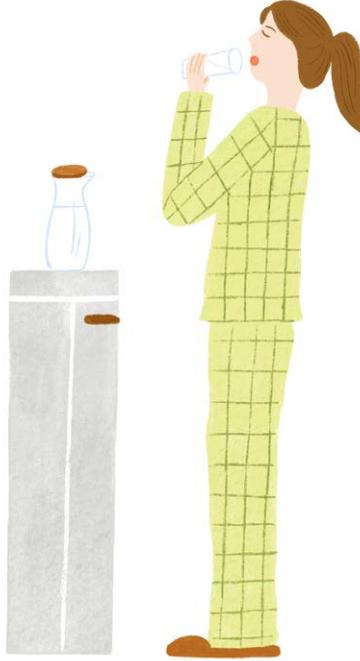
리추얼(ritual)은 습관과 닮았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나는 자주 '나쁜 습관은 있지만, 나쁜 리추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리추얼은 습관처럼 주 기적으로 반복하는 활동이지만 이 행동이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매일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습관이라면, 리추얼은 여기에 의미 부여가 더해진다. 하루를 긍정적으 로 시작하기 위해 어떤 다짐을 한다거나, 오늘 할 일을 적어보는 등 의식적인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옷을 아무 데나 놔두는 습관이 있다면, 리추얼은 그 행동을 관찰한 뒤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는 식이다. 삶에 리추얼이 생기면 규칙적인 습관이 만들어 질 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을 보살피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리추얼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중심을 잡고 헤쳐나갈 수 있다.

## 일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리추얼

코로나바이러스가 삶의 저변을 흔들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힘들어한다. 바이러스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살 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만드는 것이다. 바깥의 세계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내 일상, 내 시간, 내 삶 만큼은 건강하게 만들 힘을 기르는 것이다. 리추얼은 이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안 하던 리추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대를 정해보는 게 좋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대가 '아침'이다. 기상과 출근 사이, 자투리 아침 시간을 다르게 시작하면 하루가 긍정적으로 변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는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 있음과 숨을 쉬는 것, 생각하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해보라!"

## 밑미 손하빈이 추천하는 아침 리추얼



### 10 mins 작은 성취감이 시작

스스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의욕적인 리추얼을 피하는 게 좋다. 오히려 가볍게 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자주 느껴보길 권한다. 나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과거에는 늘 아침에 기운이 빠진 채 일어나고, 허겁지겁 준비해 출근하곤 했다. 그런데 단 10분을 투자하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보다 아침을 좀 더 좋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는 리추얼은 아주 간단하다. 이불을 정리하고, 물을 한잔 천천히 마시고, 1분간 가만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긍정적인 다짐을 노트에 쓴다. 10분이지만 나를 위한 아침을 시작했다는 성취감, 하루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시각화했다는 자신감으로 좀 더 가볍고 신나게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30 mins 모닝 페이지 쓰기

매일 아침,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30분을 투자해 '모닝 페이지'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모닝 페이지라는 말이 생소하다면, 일어나자마자 쓰는 아침 글쓰기라고 해석해도 좋다.『아티스트 웨이』의 저자 줄리아 카메론(Julia Cameron)이 제안하는 아침 리추얼이다. 눈을 뜨자마자 20분간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다. 주제도 형식도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20분간 집중해서 적어본다. 이 글쓰기의 목적은 자신의 마음속 무의식적인 생각을 꺼내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써도 되나 자책이 들기도하는데, 계속 쓰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속마음을 노트에서 발견하거나, 하고 싶은 것의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이 리추얼로 아침을 시작해보자.

### 15 mins 아침 식사와 5줄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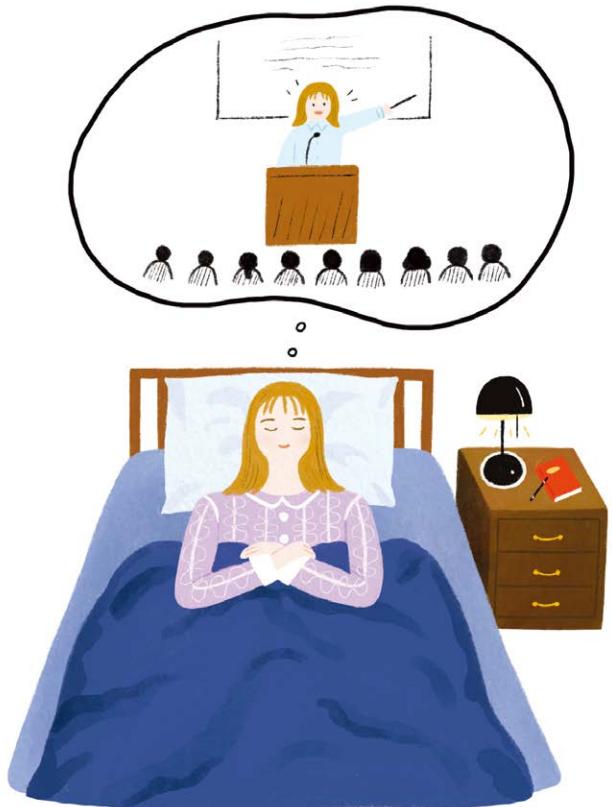
아침에 활기찬 에너지를 좀 더 채우고 싶다면, 아침을 보다 밀도 있게 보내는 리추얼을 추천한다. 딱 15분이면 충분하다. 매일 아침 5줄 일기를 쓰고, 자신을 위한 간단한 아침을 차리는 것이다. 거창할 필요도 없다. 사과 한 알, 비타민 하나, 차 한잔도 나를 위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좋아하는 접시나 컵에 담고 천천히 향과 맛을 음미해보자.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식사라 생각하고 식탁을 준비하는 마음은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갈 용기를 심어준다. 매일 바쁘게 사느라 잊었던 감각을 일깨운 후, 아침 일기를 쓴다. 너무 긴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매일 딱 5줄 정도 쓰는 아침 일기는 그 자체로 자신의 역사가 쌓이는 일이 된다.



### +plus 내일 아침을 위한 오늘 밤 리추얼

아침을 잘 시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매일 밤 '감정 일기'를 쓰고 잠에 듈다. 하루 종일 사회인으로 살다 보면 내 감정을 살피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야 할 때가 많은데, 모든 일정이 끝난 밤이 되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내 감정에 집중하는 감정 일기를 쓴다. 이 일기를 쓴 뒤로 잠도 더 잘 자고, 어제의 나쁜 감정이 오늘로 이어지는 일이 줄어들었다. 마치 취침 전에 밖에서 쌓인 때를 닦아내기 위해 세수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감정 일기의 목적이다. 다음 날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밤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리추얼을 해보길 추천한다.

좀 더 간단하게 밤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내일을 시뮬레이션하는 리추얼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이 많은 사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리 하루를 예상해보고 잠드는 것을 추천한다. 내일의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내일을 한번 상상해보고 예측해보는 것이다. 마치 준비운동을 한 뒤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내일을 잘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아주의 아주 특별한  
MZ세대 소통법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융합을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Z세대가 메타버스에 몰입하는 요인으로  
'멀티 퍼르소나'를 꼽을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데 익숙한  
이들에게 메타버스는 더욱 다양한 나를  
보여주는 장(場)이다. 이에 기업들은 기존의  
틀에 박힌 이미지를 벗고 MZ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메타버스로 기꺼이  
뛰어들고 있다. 아주에서도 MZ세대  
구성원과의 진솔한 소통을 위해 메타버스  
세상에서 다양한 만남이 한창이다.

### 대세가 된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트렌드 키워드로 꼽은 '멀티 페르소나'가 올해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흔히 '부캐'라고 부르는 멀티 페르소나는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회사나 학교 등 본래의 일을 할 때,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SNS 등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 등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기업과 브랜드는 멀티 페르소나에서 마케팅의 방향성을 찾고 있다. 고객이 극도로 세분화되는 현대 시장에서 타깃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기획자나 마케터는 좀 더 분명하게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백화점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더현대 서울에도 멀티 페르소나

개념이 녹아 있다. 2015년 백화점 개점을 기획하면서 더현대 서울은 '고객 페르소나'를 아홉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이라고 자각할 수 있는 공간, '페르소나 공간'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김난도 교수와 연구진은 신간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에서 페르소나 공간을 더현대 서울의 성공 키워드로 꼽는다. "이러한 '유연한 자아(flexible self)'의 시대에 사람들은 혈연·학연·지연 같은 일차적 관계보다 취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취향은 단순히 즐기는 취미의 차원이 아니라 소통과 소속의 욕구를 실현하는 정체성 의식 형성의 핵심이다." 백화점의 미래가 력셔리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멀티 페르소나 시대의 력셔리란 비싼 명품 브랜드 가 아니라 '확고한 취향'인 셈이다.



### 아주 새롭게, 메타버스 시무식

사실 멀티 페르소나가 가장 많이 호출되는 곳은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영어로 가상, 초월 등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가상 세계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했으며, 현재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뜨거운 경쟁이 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시무식을 통해 그 변화의 일부를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전 구성원과 공유하고자 메타버스 시무식을 준비했다. 또 다양한 경험과 시각으로 스스로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아주가 추구하는 ANT 경영인 만큼 모든 구성원이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받아들여 용맹한 호랑이처럼 새 시대를 거침없이 리드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1월 3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진행한 시무식에서는 100여 명의 아주 구성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 개성 있게 꾸민 아바타로 변신했다. 문규영 회장도 앱을 통해 직접 꾸민 아바타로 무대에 등장해 특별한 소감을 전했다.

"직접 만나 인사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싶은데 여건이 녹록지 않아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또한 이날 시무식에서는 2021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올해의 아주인과 올해의 사업장에 대한 시상과 2022년 신임 임원 소개까지, 기존에 집합 행사로 진행되던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무식 마지막 순서로는 화제의 음악인 이날치 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 팀의 '범 내려온다'를 아주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한 특별한 영상을 공개했다.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우리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트렌디하게 재해석해 전 세계를 열광시킨 모습이, 아주 정신은 지키면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 새롭게 거듭나는 아주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마지막에 "2022년 범처럼 용맹한 아주인들의 도전을 응원한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약 30분간 진행된 아주의 새로운 시무식, '2022 아주 메타버스 시무식'이 막을 내렸다.

###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아주 복면가왕'

한편 아주에서는 사내 웹진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특별한 사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아주 구성원들이 저마다 개성 넘치는 아바타로 변신, 소속부터 나이, 직책 등을 숨긴 채 메타버스 안에서 오직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겨루는 음악 오디션 '아주 복면가왕 ON 메타버스'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1월 21일 저녁 8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첫 번째 경연이 무대에 올랐다. 이프랜드 속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금요일 밤 루프탑 랜드'에서 진행한 첫 경연에 출사표를 던진 미스터리 싱어들. '새해를 맞아 아주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주제로 불금 저녁을 뜨겁게 달궜다. KBS <불후의 명곡> 대표 편곡자로 활동 중인 심태현 작곡가가 심사위원으로 등장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심사 평을 전하기도 했다. '아주 복면가왕 ON 메타버스' 이벤트는 매월 진행하며, 5월 왕중왕전을 거쳐 6월 최후의 가왕을 공개할 계획이다. 가왕에게는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아주는 구성원들에게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이 이를 통해 더욱 자유롭고 열린 소통 문화를 이뤄나갈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유 있는 변화

아주호텔앤리조트가 아주컨티뉴엄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기존 호스피탈리티 사업과 연계한 부동산 테크 분야로의 진출을 알렸다. 더욱 넓은 시장을 발굴하여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 변화는 시대의 요구

바야흐로 변화가 상수, 혁신이 일상인 시대다.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비즈니스 생태계 구조 자체가 대대적으로 변화 중이다. 게다가 팬데믹이 촉발시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서비스, IT, 호스피탈리티 사업 등 모든 산업에서 기존과 다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불을 켜고 있다.

기업 혁신의 중요성은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대표적 예로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가장 오래된 기업인 듀폰의 생존 비결도 바로 혁신과 변화였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챠드 홀리데이 (Chad Holiday) 전 회장의 말처럼 듀폰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약 공장을 시작으로 섬유, 화학, 물질과학까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반면 소니, 노키아, 코닥 같은 글로벌 기업은 대변혁의 시대 흐름을 놓치고 역사의 뒤판길을 걸었다. 이전 비즈니스 모델이 이뤄낸 엄청난 성공에 안주한 채 변화에 대응하는 차기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더 앞선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기반

아주호텔앤리조트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테크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더 넓은 시장과 가능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 신호탄으로 지난 1월 사명을 아주컨티뉴엄(AJU CONTINUUM)으로 변경했다.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Continuum은 ‘연속체’, ‘이어가다’의 뜻이 있는데, 아주컨티뉴엄이 주목한 신사업 분야는 부동산 테크다. 1987년



서교호텔을 인수하며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진출한 이래 30년 넘게 쌓아온 호텔·개발, 호텔 브랜딩·운영, 리테일·기술 산업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관련 분야 역량을 충분히 쌓아온 부동산 테크 분야를 시작으로 더 많은 시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자 하는 비전을 신규 사명에 담았다. '컨티뉴엄'의 한정 없이 무한으로 지속 연결된다는 의미와 함께, 아주컨티뉴엄은 조직원의 비즈니스적 역량, 상호 간 신뢰, 조직 내 공유와 활용 및 체화를 영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회사가 가진 궁극적 가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부동산 테크 중심 사업 다각화

신규 사명은 회사의 전략 방향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2016년 투자했던 스타트업 스파크플러스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면서 10배 이상 이익을 실현했다. 아주컨티뉴엄은 이를 계기로 삼아 호스피탈리티 사업을 넘어 부동산 관련 테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대상을 변화하고 확장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참고로 스파크플러스는 2016년 당시 국내 1인 기업 및 스타트업이 크게 증가하고 공유 경제 개념이 빠르게 확산한 가운데 스파크랩과 아주호텔앤리조트의 합작으로 출범한 한국형 공유 오피스 기업이다. 2018년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이후 1년여 만에 300억 원에 달하는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아주컨티뉴엄은 이 성장 과정에서 신규 후보 센터 사이트 소개, 차별화 전략 제안, 신규 사업부(인테리어) 개설 자문, 임대계약서 검토, 출점 승인, 리테일 관련 법인 등 공유 오피스와의 시너지가 가능한 법인 소개, 협의체 운영 등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수행해 스파크플러스 성장의 가속화를 도왔다.

#### 스타트업과 기존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기대

아주컨티뉴엄은 크게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브랜드·운영 사업부', 투자 조직인 '호텔 부동산 투자 사업부', 그리고 신생 조직 '벤처 스튜디오'로 구성된다. 특히 벤처 스튜디오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지속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이다. 스타트업을 발굴·설립하고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조력자, 즉 '컴퍼니 빌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컴퍼니 빌더는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팀원 구성, 사업 방향 설정, 투자 유치 시기 및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는 이를 말한다. 다른 조력자에 비해 스타트업 경영에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벤처 스튜디오는 이미 2019년 개설한 미국 현지 사무소가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앞으로 스파크플러스와 같은 성공 사례를 재현 할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기존 비즈니스와의 시너지에서 생기는 가능성을 확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문윤회 아주컨티뉴엄 대표는 "조직원의 역량, 상호 간 신뢰, 공유와 체화를 영속화한다는 우리의 가치를 담고 회사의 정체성과 전략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하면서 관련 역량이 충분하고 기술이 가미된 프롭테크 분야를 시작으로 더 많은 시장과 가능성을 발굴하며 회사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아주컨티뉴엄 출범식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세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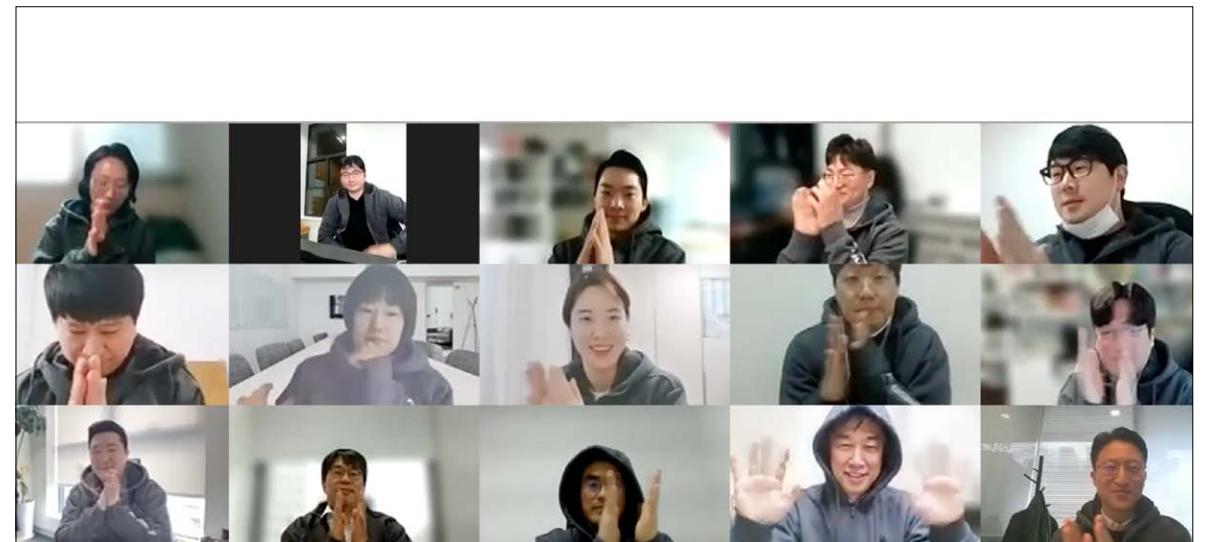


지난 2월 15일 아주컨티뉴엄 출범식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문윤회 대표가 아주컨티뉴엄의 철학과 비전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분위기는 진지했다.

문윤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주컨티뉴엄이 지향하는 혁신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이란 발명이나 기술을 가진 자, 뛰어난 리더 한 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변을 관찰하며 느끼는 불편이나 호기심, 작은 관심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항상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테스트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범식은 구성원 모두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주컨티뉴엄의 미션(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세상을 바꾼다!)을 함께 외치는 아주 특별한 리추얼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 착의식에는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에 기반한 단단한 조직이 되자는 의미, 아주컨티뉴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이 담겨 있다.

구성원 모두 같은 옷으로 입는 착의식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주컨티뉴엄의 미션(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세상을 바꾼다!)을 함께 외친다.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세상을 바꾼다!!!"

# AJU news

## 광명사업소, 상공의 날 유공자 표창 수상

아주산업



지난 3월 17일 아주산업 광명사업소가 제49회 상공의 날을 맞아 지역 경제 및 상공 단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상공의 날은 국내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1972년에 만든 법정기념일이며, 유공자 표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고용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등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한 경기도 내 상공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광명시 상공회의소에서 약식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광명사업소 김장힐 사업소장은 광명시 상공회의소 조용호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아주산업 광명사업소는 지역 내 상공인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 특히 광명시 관급 공사와

재건축 현장에서 모범적 경영을 선보인 것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뛴 광명사업소의 진심과 노력이 빛을 발한 셈이다. 후문에 따르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시청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많은 칭찬과 주천이 있었다고.

광명사업소 사업 개시 이래 상공의 날 유공자 표창에서 첫 수상의 영광을 안은 김장힐 소장은 "최근 레미콘 산업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광명사업소에 대해 어려운 건설 환경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격려해주셔서 직원들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아주, IT 사업부문에 강학동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아주큐엠에스



"국내 유수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 동반자로서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아주가 강학동 전 IBM GBS(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대표를 IT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강 대표이사는 25년간 IBM에서 CRM 서비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삼성그룹 영업총괄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으며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 혁신을 이끌었다. 또 IBM 성장 국가의 컨트롤 타워였던 중국 상하이에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솔루션 개발 및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임원으로, 다양한 국가의 해외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내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인도, 중국 등 해외 사업을 주도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기여했다.

강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 기업인 '코그넷나인'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큐엠에스'의 사업을 총괄한다. 강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아주는 그룹 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대외 디지털 기반의 신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업형 인공지능 솔루션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 기반의 인공지능 구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강학동 아주 IT 사업부문 대표는 "현재 기업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에 접목해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증명하고자 하는 디지털 혁신의 과도기"에 있으며 "아주 IT 사업부문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기획, 구현, 운영 전 분야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성과를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HN, NHN다이퀘스트와 AI 업무협약 체결

코그넷나인

## 엔에이치엔(주) | (주)엔에이치엔다이퀘스트 | (주)코그넷나인 인공지능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식

2022년 1월 27일(목) 15:00, NHN 플레이뮤지엄



코그넷나인이 NHN, NHN다이퀘스트와 AI MSP(Managed Service Provider) 파트너로서 AI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NHN은 금융 클라우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페이코를 통해 금융사와 협업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하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금융권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NHN의 자회사인 NHN다이퀘스트 역시 국내 최고 자연어 처리(NLP) 기술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금융권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코그넷나인은 NHN과 AI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장기 운영 계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확보와 향후 산업별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NHN 다이퀘스트와는 NHN다이퀘스트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AI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을 주도하고, 고객사를 대상으로 구축과 운영 서비스를 전담해 산업별 AI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 고객 스펙트럼을 확장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그넷나인 관계자는 "이번 AI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2년 외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권 AI 사업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산업별 AI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도 단단히 다질 전략"이라고 밝혔다.

여유와 능률을 채우는 新박한 곳,  
LOUNGE 채움

아주



아주 본사 청남빌딩 2층에 아주 구성원을 위한 특별한 공간, 'LOUNGE 채움'을 조성했다. 소통과 휴식은 물론, 집중적 업무를 비롯해 미팅, 협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작년 1월 아주본사에 생긴 여유 공간을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사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 TFT'를 결성했다. 이후 사내 설문 조사를 실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휴식 중심의 복합 공간 조성을 결정했다. 약 4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성한 LOUNGE 채움은 크

'LOUNGE 채움'이라는 이름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아주산업 강원호 매니저가 제안한 이 이름에는 '의미 있는 공간에서 소통과 휴식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 집중과 독서를 통해 내면의 양식을 채우며, 다양한 협업 만든 출입문 너머 구성원들이 가장 반기는 곳은 카페다. 차를 즐기며 동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아주 구성원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엄선한 것이라고. 중앙 라운지와 다양한 테이블은 회

의, 고객 응대 등 여러 업무에 활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공간이다. 특히 24시간 개방하는 2개 거점 오피스는 보다 집중이 필요한 부서 간 회의는 물론, 최근 후 회사 복귀의 수고를 덜고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돋

는다. 4개의 프로젝트 회의실(기쁨룸, 긍정룸, ANT A·B룸) 또한 미팅 및 회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밖에 몰입도와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1인 집중 공간'도 눈길을 끈다.

'LOUNGE 채움'이라는 이름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아주산업 강원호 매니저가 제안한 이 이름에는 '의미 있는 공간에서 소통과 휴식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 집중과 독서를 통해 내면의 양식을 채우며, 다양한 협업

자연을 담다, 자연을 닮다

아주



자연에서 얻는 위로와 소통,

아주농부 시즌 2

아주



팬데믹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있는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처음 선보인 '아주농부' 프로그램이 시즌 2로 돌아왔다. 올해는 청계산 자락 농원에서 이뤄지는 '텃밭 가꾸기 활동'과 함께 재택근무자와 원거리 근무자를 위한 '홈 가드닝'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 토마토, 딸기 등의 모종과 화분, 마사토, 영양제 등 모든 물품이 포함된 '텃밭 키트'를 제공해 임직원 누구나 집에서 쉽게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아주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2022년 탁상용 캘린더와 다이어리를 전 구성원에게 전달했다. 아주 고유의 색깔을 표현하는 한편,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긍정 에너지를 담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캘린더 아티스트는『아주 좋은 날』2021년 가을호 표지에 실린 김형선 작가로,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대담하고 절제된 터치로 리듬감 있게 캔버스에 담아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삶의 위로'라는 작가의 메시지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꽃들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저절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하다.

한편 새 다이어리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의 마음이 담겨 있다. 먼저 아주의 정체성이 담긴 콘크리트 회색과 친환경을 상징하는 초록색이 어우러진 민트색 커버로 청량감을 주었다. 또 사탕수수로 만든 비표백 용지로 제작했으며 수납용 지함, 포켓, 비닐 포장 등 부가 요소를 덜어내는 등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17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공식 후원사 참여

아주IB투자 &amp; 아주컨티뉴엄



아주IB투자와 아주컨티뉴엄이 오는 5월 3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체크 메이트(Czech Mate)' 공연에 후원을 진행한다. 이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인 제17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이하 SSF)의 대표 공연 중 하나로,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를 품은 체코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아주는 2012년부터 SSF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아주의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 중 하나다.

## SPECIAL GIFT

『아주 좋은 날』 2022년 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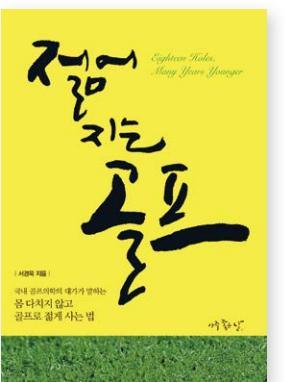
### 『상상으로 만나는 FACES COLORING BOOK』

숨 가쁜 일상에서 빠져나와 숨 고르기 모드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컬러링 북이다. 환상적인 분위기의 일러스트가 현실 공간의 나를 상상 속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옮겨놓는다.



### 오늘과 다른 내일,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생기가 돌죠.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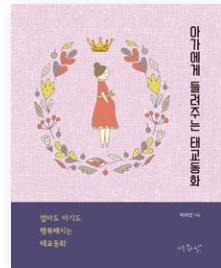
### 『젊어지는 골프』

국내 최초로 골프의학을 도입한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대한골프의학회장인 서경목 교수가 다년간의 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골프 지침서다. 골퍼 대부분이 잘못된 연습과 스윙 때문에 '골프 노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골프를 하고 있다는 사례들을 곁들여, 활력있는 골프를 타수도 줄여가며 평생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1**

###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독서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롭고 상상이 넘치는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끌곤 합니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컬러링 북,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 우리 미래를 이끄는 차세대를 위한 태교법,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의 도서를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선물로 드립니다.



### 『아가에게 들려주는 태교동화』

엄마와 아기가 함께 행복해지는 15편의 창작 태교동화가 실려 있다. 특히 아빠도 태교에 참여하는 요즈음, 아빠가 읽어주는 태교동화는 태어날 아기의 행복지수를 높여준다. 몸의 변화와 함께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쉬운 임산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곧 세상에 나올 아기에게 대한 기대감과 설렘 지수를 높여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열 달'을 만들어준다.

### 『메타버스 여행』

이제는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어린이 독자들이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와 함께 안내한다. 주인공 민국이가 메타버스를 단순히 '온라인 게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 독자들 역시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잔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3**

reader's story

20여 년 전 헬렌 니어링의『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갓 30살이 넘은 그때는 헬렌과 스콧 부부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삶 또한 가치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먹고 마시며 물질에 탐닉하는 지금 세대에게 경종이 될 수 있는 이들 부부의 철학 '소유는 적계, 삶은 충만하게'를 저 또한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싶습니다.『아주 좋은 날』 덕분에 이 책을 다시 꺼내 읽게 되어 더없이 좋았습니다.

장효선 님

이정옥 님

